

# 청각장애인 보청기사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Study on Factors to Influence the Hearing-impaired in Relation to Their Using Hearing Aids

이성대\*, 박정배, 염동문  
S. D. Lee, J. B. Park, D. M. Yeum

### 요 약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보청기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4차년도 장애인 고용패널 5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Andersen-Newman의 서비스 이용모델을 기반으로 선행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요인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능성 요인에서는 총소득이 낮고 장애수용정도가 높을수록, 욕구요인에서는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보청기 사용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의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ose factors to influence the hearing-impaired in connection with their using hearing aids,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521 hearing-impaired people examined by a fourth-year Korea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For the analysis, the study, first, used Andersen-Newman service use model to categorize any influential factors into precedence factors, possibility factors and desire factors, and second, in order to look into how these factors would work on the hearing-impaired's using the hearing aids, the study conducte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erms of the precedence factors, when the hearing-impaired people are older and more highly-educated, they would be happier to use the hearing aids while when it comes to the possibility factors, when the gross income of these people is lower but when they are more willing to accept the fact that they have a disability, they would have a fewer problems with using the hearing aids. In addition, regarding the desire factors, when the hearing-impaired people can hear relatively better than the other hearing-impaired, they would be more significantly willing to use the hearing aids. In the light of what has been learned, the study discussed the limits of its research and proposed implications.

**Keyword** : Hearing aids, Hearing-impaired people, Andersen-Newman model, Assistive devices

접 수 일 : 2014.04.18

심사완료일 : 2014.05.12

게재확정일 : 2014.05.26

\* 이성대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event-sd@hanmail.net (주저자)

박정배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yangjygd@hanmail.net (공동저자)

염동문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ksltv@hanmail.net (교신저자)

## 1. 서론

인류는 몸짓과 손짓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리와 언어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의사소통을 주고 받아왔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로 인해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언어장벽도 수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경제생활과 취미, 사교(社交), 종교생활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차별을 당해 왔다[1-2].

청각과 언어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서 좌절감과 고립감, 소외감 등을 초래하여 삶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3-5], 일상생활에 있어서 만족도 또한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청각장애인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취업률은 높지만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능력으로 직장적응이 어려워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거나 동일 직장에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잦은 이직과 낮은 근무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9].

2012년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총 2,51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8천명에서 약 162% 급증하였다. 이 중 청각장애인은 총 258,589명이며 남성이 142,029명(54.9%), 여성이 116,560명(45.1%)으로 조사되었다. 청각장애의 발생은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이 91.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장애발생 시기는 10대 미만이 1,741명(0.7%), 10대 3,943명(1.5%), 20대 4,909명(1.9%), 30대 9,427명(3.6%), 40대 18,883명(7.3%), 50대 37,267명(14.4%), 60대 52,689명(20.4%), 70대 75,164명(29.1%), 80대 이상 54,566명(21.1%)으로 조사되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각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청기가 필요한 청각장애인은 전체 74.3%이었고 보청기를 소지한 청각장애인은 66%로 나타나고 있다[10].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령화 추세는 재활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하고 있으며, 과거 장애인에 대한 관점 또한 치료와 보호관점에서 인권적 주체로서의 소비자이자 당사자, 자립생활의 주체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각보조기인 보청기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향후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사용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과 경제생활의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dersen & Newman 모델을 기반으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배경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Andersen과 Newman (1973) 모델은 다양한 의료관련 서비스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어진 분석틀으로써 개인의 행동의 유형을 구분하여 개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영향요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이다[11]. 이 모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특성과 조건이 그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형태를 결정한다고 보고, 개인의 특성과 조건들을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성요인(enabling factors) 및 욕구요인(needs factors)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11-12].

먼저, 선행요인은 소인성 요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교육 등과 같이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특정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갑자기 쉽게 수정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서비스이용 이전 단계부터 개인에게 존재하는 특성들로 인구학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 태도와 신념에 관한 변수들이 포함된다[11-13].

두 번째, 가능성요인은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단으로 소득, 건강보험의 영역, 자원 접근 가능성,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여부 등이 변수에 해당된다. 소득은 경제적 상태나 사회계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변수이며, 의료급여는 장애나 빈곤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변수이다.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지지 등은 독립적인 의료접근에 제한이 있을 경우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되어진다[11-13].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병과 관련된 요인으로 질병의 정도나(illness level), 증상 기능상태 등 일반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며[14], 특히 노년기에 증가하는 신체 질환이나 기능저하는 노인들의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15][12].

이와 같은 Andersen & Newman 모델은 의료서비스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이용결정요인을 탐색하는데 적용되어 왔다(이성은, 2013). 의료영역에서 국내의 연구들은 노인과 장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12][16-18], 장애노인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연구[19], 청력저하 노인의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14]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대상에 따른 연구[20-22]와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 노후준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13] 등이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에 따른 요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2010)의 난청 환자의 보청기사용에 관한 연구에서 보청기 사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력장애 정도가 보청기 사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홍정아 외(2013)의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청기 사용유무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보청기 사용 유무에 따라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청기사용 청각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이성은(2013)의 청력저하 노인의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낮을수록 동거 자녀가 없는 경우, 건강상태로 인한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청력저하 노인의 보청기 사용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본 연구에서는 Andersen & Newman 모델을 이용하여 선행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사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요인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을 포함시켰으며, 가능성요인으로 총소득, 수급여부, 주관적·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 장애수용정도를, 욕구요인으로 장애등급, 주관적 건강상태, 타인의 도움정도, 수화사용여부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 3. 연구방법

#### 3.1 이론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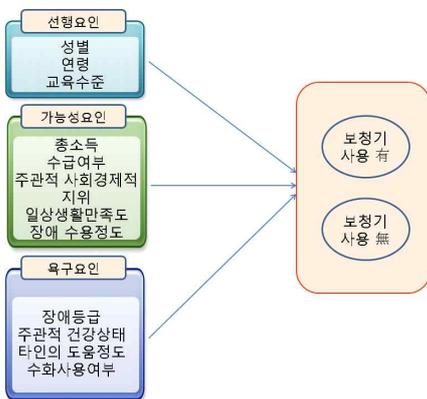


그림 1. 이론적 모형

####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용패널은 장애인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와 그 동태적 흐름을 파악하고,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어 장애인의 특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4차년도 패널 중 청각장애인 52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3.3 변수의 측정

##### 3.3.1 보청기 사용유무

보청기사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유무를 측정하였다. 보청기를 사용 유무는 “0=미사용, 1=사용”으로 코딩하여 측정하였다.

##### 3.3.2 선행요인

선행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선정하여 각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생물학적 연수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1=초등학교 이하, 2=중학교, 3=고등학교, 4=대학교 이상”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아지게 설정하였다.

##### 3.3.3 가능성요인

가능성요인은 취업상태, 총소득, 수급여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일상생활만족도, 장애수용정도 등을 선정하여 각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총소득은 만 원 단위로 조사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보정한 ‘가구원소득’을 분석에 투입하였는데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연로그변환을 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급여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는 묻는 문항을 사용하여 “1=수급자, 0=수급자 아님”으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1=하층, 2=중하층, 3=중상층, 4=상층”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일상생활만족도는 가족, 친구,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한달수입, 여가활동을 묻는 6문항을 통해 “1=매우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만족”으로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장애수용정도는 장애수

용에 대한 12문항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코딩하였으며, 일부항목의 경우 역 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정도가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3.3.4 욕구요인

욕구요인은 장애등급, 중복장애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병여부, 타인의 도움정도, 수화 사용여부 등을 선정하여 각 변수들을 측정하였다. 장애등급은 “1=1급, 2=2등급, 3=3등급, 4=4등급, 5=5등급, 6=6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좋은 편이다, 4=매우 좋다”로 나누었으며, 타인의 도움정도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1=전혀 필요 없다, 2=필요 없다, 3=약간 필요하다, 4=매우 필요하다”로 구분하였다. 수화 사용여부는 “1=수화 사용, 0=미사용”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보청기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성 43.0%, 여성 57.0%였으며,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3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2급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50.7%,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74.7%, 수화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88.7%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은 평균 54.21세, 소득총합은 평균 7.41,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평균 1.55, 일상생활만족도 평균 3.10, 장애수용정도 평균 2.90, 현재건강상태 평균 2.39, 일상생활 타인도움필요여부 평균 2.17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	224	43.0
	여	297	57.0
최종학력	무학	109	20.9
	초등학교졸업	162	31.1
	중학교졸업	89	17.1
	고등학교졸업	132	25.3
	대학교이상	29	5.6
장애등급	1급	15	2.9
	2급	159	30.5
	3급	104	20.0
	4급	84	16.1
	5급	80	15.4
	6급	79	15.2
보청기사용여부	예	264	50.7
	아니오	257	49.3
기초수급여부	예	132	25.3
	아니오	389	74.7
수화사용여부	예	59	11.3
	아니오	462	88.7
연령		M=54.21	
ln-소득총합		M=7.41	
주관적 사회경제적지위		M=1.55	
일상생활만족도		M=3.10	
장애수용정도		M=2.90	
현재건강상태		M=2.39	
일상생활 타인도움필요여부		M=2.17	

4.2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표 2와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요인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은 경우에 비해 연령이 높은 경우에 보청기를 사용할 승산(odds ratio)이 1.023배 증가하였고,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 보청기를 사용할 승산(odds ratio)이 1.20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 요인에서는 총 소득과 장애수용정도가 보청기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청기를 사용할 승산(odds ratio)이 0.692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수용정도가 증가 할수록 보청기를 사용할 승산(odds ratio)이 1.70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는 장애등급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등급이 높아질수록 보청기를 사용할 승산(odds ratio)이 0.536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보청기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모델 1				모델2				모델3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B	S.E.	Wald	Exp(B)	
선행 요인	성별	.044	.179	.059	1.045	.062	.183	.116	1.064	.017	.186	.008	1.017
	연령	.023***	.009	6.977	1.024	.018*	.009	3.902	1.018	.023*	.010	4.754	1.023
	교육수준	.150	.079	3.607	1.161	.159	.084	3.593	1.172	.185*	.087	4.518	1.203
가능성 요인	ln-총소득					-.361*	.148	5.966	.697	-.369*	.150	6.046	.692
	수급여부					-.162	.238	.462	.851	-.150	.247	.365	.861
	사회경제적지위					-.043	.173	.063	.957	-.024	.176	.019	.976
	일상생활만족도					-.125	.204	.378	.882	-.206	.217	.900	.814
	장애수용정도					.462	.244	3.584	1.587	.554*	.255	4.724	1.740
욕구 요인	장애등급									-.624*	.324	3.700	.536
	주관적 건강상태									-.227	.071	10.266	.797
	타인의 도움정도									.164	.172	.910	1.178
	수화사용여부									-.022	.121	.033	.978

X<sup>2</sup>=31.05, P>.01

\*p<.05, \*\*P<.01, \*\*\*P<.001

### 5. 결론 및 논의

청각장애인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차년도 자료 중 청각장애인 52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보청기를 사용할 승산(odds ratio)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청력저하에 의한 영향을 받는 노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으로 인한 현상으로 대상뿐만 아니라 필요성 또한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보청기와 같은 청각 보조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청력저하로 인한 증상의 악화를 완화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과 장애수용정도가 높을수록 보청기를 사용할 승산(odds ratio)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낮은 교육수준은 청력저하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나 보청기 등 보조기기 접근루트에 있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보청기 사용에 제한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보청기 사용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청기를 사용한 승산(odds ratio)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은 선행연구(이성은, 2013)와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보청기 사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보청기 사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승산(odds ratio)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이 낮은 경우에 비해 등급이 높은 경우 보청기를 사용할 승산(odds ratio)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종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등급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만족도나 실용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 있는 수화, 구화, 판서, 휴대폰 문자, 영상통화 등 다양한 TRS(통신중계서비스)와 수화통역서비스 같은 의사소통 지원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Anderson & Newman 모델을 사용하여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패널자료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의 보청기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구의 방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류재욱,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정보화 실태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 김순옥,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요인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5권, 제1호,

pp.47-73, 2008

[3] 김화연, 청각장애아 부모의 적응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 이동현, 성인청각장애인의 직업생활이 가족관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5] 홍정아, 이성대, 염동문, “보청기 사용이 청각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 pp.62-72, 2013

[6] 강창욱, 이준우, “청각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제15권, 제2호, pp.75-91, 2006

[7] 김현주, 청각장애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8] 이형렬, 청각장애인의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9] 김종인, 이완우, “장애인근로자와 비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비교 연구,” 중북·지체부자유아교육, 제47권, pp.45-62, 2006

[10] 보건복지부, 2012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1] Andersen, R, M., and Newman, J.F,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Journal, Vol,51, pp.95-124. 1973

[12] 전혜숙, 강상경, “연소노인과 고령노인 간 의료서비스 이용 예측요인의 연령차: 고령화 사회의 의료서비스에 주는 함의,”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1호, pp.28-57, 2012

[13] 정순돌, 김성원,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의 신체적노후준비 영향요인: Andersen과 Newman 모델의 적용,” 노인복지연구 제59권, pp.237-256, 2013

[14] 이성은, “청력저하 노인의 보청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dersen-Newman 모델을 기반으로,” 언어치료연구, 제22권, 제3호, pp.213-229, 2013

[15] 도세록, “노인의 의료이용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57권, pp.66-79, 2009

[16] 전혜숙, 강상경,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장애인 외래의료서비스 이용패턴 및 연령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4권, pp.133-159,

2013

[17] 김진구, “성, 연령, 지역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의 집단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2호, pp.319-344, 2012

[18] 강상경, “노년기 외래의료서비스 이용패턴 및 예측요인: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3호, pp. 83-108, 2010

[19] 김홍수, 권순만, 전보영, 이혜재, “장애노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제31권, 제1호, pp.171-188, 2011

[20] 유해숙, 전동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현황과 요인,” 재활복지. 제12권, 제1호, pp.1-17, 2008

[21] 임연옥, 윤현숙,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서울과 춘천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9권, 제3호, pp.1063-1085, 2009

[22] 김안나, 최승아,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pp. 295-334, 2012

[2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난청환자의 국내 보청기 사용 효과성과 장애요인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pp.168-182, 2011

**이성대**



2013년 -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연구방법론, 장애인정보화

**박정배**



2013년 -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 정보화 및 직업재활

**염동문**



2003년 -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의 정보화 및 의사소통